

이명박 후보 '대입 3단계 자율화' 공약 논란 조짐

참여정부 '3불정책' 사실상 폐지 추진

(고교등급제·기여입학·본고사 금지)

교육계 엇갈린 반응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9일 '대입 3단계 자율화' 등을 골자로 하는 교육 정책 공약을 발표하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3불정책 논란'이 재연될 소지가 생겼다.

3불정책이란 대학입시에서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본고사 등 3가지를 금지하는 것으로 현 정부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원칙'이라며 고수하고 있는 반면, 대학들은 경쟁력을 해치는 대표적 규제라며 반대해왔다.

이 후보는 "3불 폐지"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기여입학제는 좀더 논의해 봐야 할 것 같고 나머지 두 사항은 대학 자율에 맡기면 자연스럽게 없어질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 폐지를 염두에 둔 것이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교육공약 어떤 내용 담겼나=이 후보는 대입정책과 관련, 입시부담을 줄이기 위해 '3단계 대입 자율화'를 추진하겠다고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가 9일 여의도 당사에서 교육분야 공약 발표식을 갖고 '사교육비 절반 5대 실천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밝혔다. 1단계로 대학이 학과 특성에 따라 학생부와 수능성적을 자유롭게 반영하도록 하고 2단계로 수능 응시 과목을 줄여 학생들의 부담을 완화하며 마지막 3단계로

대입을 완전히 대학 자율에 맡기겠다는 것. '대학 자체 학생선발능력과 제도적 기반이 구축됐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라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 "대입 완전 자율화"를 단행하겠다"고 언급함으로써 3불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이 있을 것이라 추측을 가능케 했다.

◇3불정책 왜 논란인가=고교등급제란 쉽게 말해 전국의 고교를 서열화해 대입전형에 반영하는 제도다. 즉 강남과 비강남, 수도권과 지방 등 지역 고교 간 학력차를 인정해 이를 입시에 반영하지는 것이다.

참여정부가 이 세가지 원칙을 대입원칙의 '마지막 보루'로 여기는 이유는 세가지가 무너질 경우 현 평준화정책의 근간이 흔들리고 학교 간 서열화, 계층 간 갈등, 교육 불평등 등 부작용이 심해질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본고사 등 3가지 모두 이념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논란이 정부-대학 간 갈등에서 종종

계층간 대립으로 비화한다는 것도 3불정책 논의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다.

◇교원단체·대학 의견 분분=이날 발표된 교육공약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와 대학들은 서로 엇갈린 반응을 내놓으며 관심을 표명했다.

교총은 즉각 논평을 내고 "교육평등주의에 경도된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수월성을 보완하는 취지에서 긍정적"이라며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반면 전교조는 "선진국에서도 교육만큼은 양극화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데 그것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교육부 내부에선 '3단계 대입 자율화' 공약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현재로서 어떤 논평을 하기가 어렵다는 반응이 대세지만 '대학 자율화'가 가져올 부작용과 후유증에 대처할 방안이 없다며 다소 불만스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18일부터 국감

전남체신청·광주고·지법 등...31일엔 전남교육청

오는 17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2007년 국정감사에서 광주·전남지역 피감기관으로는 전남도, 전남도교육청, 광주고법·지법, 광주고검·지검, 전남도교육청, 전남대학교 등이 선정됐다.

8일 국회에 따르면 오는 18일 정보통신부에서 열리는 전남체신청 등 지방체신청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이달 말까지 광주·전남지역 피감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모두 끝난다.

17대 대선의 영향으로 몇몇 기관을 제외하고 대부분 지방관청에 대한 국감이 서울 분청 및 국회에서 열리는 것이 특징이다.

다음은 광주·전남지역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일정으로 괄호안은 국감 장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10월 18일 오전 10시 전남체신청(정보통신부)

▲10월 19일 오전 10시 광주지방기상청(기상청)

◇법사위 ▲10월 19일 오전 10시 광주고법·지법(광주고법), 오후 2시 광주고·지검(광주고검)

◇환경노동위 ▲10월 22일 오전 10시 영산강유역환경청(국회)

▲10월 23일 오후 2시 광주지방노동청(국회)

◇재정경제위 ▲10월 23일 오전 10시 광주지방국세청(중부청)

▲10월 26일 오후 2시 광주세관(관세청)

◇농해수위 ▲10월 23일 오후 2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국회)

◇행자위 ▲10월 30일 오전 10시 전남도(전남도청)

◇교육위 ▲10월 31일 오후 3시 전라남도교육청(전남교육청) 전남대학교·전남대병원(전남대)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전남도의회 오늘부터 임시회

전남도의회(의장 김종철)는 10일부터 19일까지 열흘간 제228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올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결정하고 전남도금고 선정 및 운영조례

개정안 등 7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또한 새로 발족된 전남발전연구원 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각 삼임위별로 공동혁신도시 건설사업장 및 각종 건설공사 현장 등 현지활동과 점검을 병행한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李 후보 발대식도 '脫여의도'

경기도 안산시 '이벤트' 형식으로... 미디어홍보단 본격 가동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가 10일로 예정된 당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서도 '탈(脫)여의도 정치실현'을 계속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 핵심 관계자는 9일 "내일 발대식은 여의도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개최한다는 방침으로, 과거에 볼 수 없었던 과격적인 선대위 출범행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공감시대 출정식'으로 명명된 선대위 발대식은 우선 당사가 아닌 경기도 안산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제대통령의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 안산 반월공단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으나 장소섭외와 관계로 안산 문화예술의 전당으로 정했다.

출정식 구호는 '합시다, 해봅시다, 실천하는 경제대통령 이명박'으로, 기존 선대위 발대식의 의례적인 식순에서 탈피해 '이벤트' 형식으로 치른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공동 선대위장에 외부 전문가들을 대거 영입한 데 이어 선대위 발대식 행사에서도 '과격'을 보여줌으로써 기존 정치인과

차별화되는 '탈 여의도' 의지를 강조하려는 전략으로 여겨진다.

정병국 본부장은 "지난 7일 이 후보에게 선대위 발대식 기획안과 대선홍보전략을 보고했다"면서 "대기업 CEO(최고경영자)와 서울시장의 성공신화를 강조하면서 주로 경제를 살릴 적임자라는 이미지를 적극 홍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선대위 발대식에서 대규모 미디어홍보단과 함께 '대선홍보전략'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의 선대위 최종 의사결정기구인 '전략홍보조정회의' 산하에 자리하는 미디어홍보단은 정병국 홍보기획본부장이 단장인 단장을 맡게 되며 홍보기획팀, 방송전략실, 공보팀, 뉴미디어팀, 행정지원팀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이 가운데 김인규 전 KBS 보도국장이 실장직을 맡은 방송전략실의 경우 방송연설팀, 토론지원팀 등 4~5개 팀으로 구성되며, 50~60명이 일하는 대부대가 될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의 대선 개입과 이명박 후보 비방과 관련, 문제의 비서실장과 윤승용 홍보부수석을 검찰에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한나라 대선 광주선대위장에 이만의·한 영 씨

한나라당 광주시당은 9일 이명박 대선 후보의 광주지역 선대위장에 이만의 여수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 상임집행위원장과 한영 최고위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담양 출신으로 제11회 행정고시에 합격, 광주시 부시장과 대통령 공직기강·행정부서관, 환경부 차관, 환경관리공단 이사장을 역임했다.

한 위원장은 광주시여성단체협의회장과 전남대 총동창회이사회 부이사장, 한국여성재단 광주네트워크대표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해 지방선거에 광주시장 후보로 출마한 바 있다.

광주선대위 총괄본부장은 안재홍 광주시당위원장이 맡게 됐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昌, 상임고문직 고사 왜?

대권 포부 '대안카드' 모색...昌측 '밖에서 힘껏 돕겠다'는 뜻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이명박 대선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상임고문직을 고사한 배경을 놓고 말들이 많다.

이 후보는 8일 이 전 총재와 시내 모처에서 단 둘이 만나 2시간여 동안 오찬을 하며 선대위 문제와 당내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전 총재가 지난 8월 28일 약속시간 3시간을 앞두고 개인사정을 이유로 약속을 취소한 지 40여일 만이자 이 후보 당선 후 두 사람 간의 첫 만남이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명예직인 선대위 상임고문직을 맡아달라고 공식 요청했으나 이 전 총재는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놓고 당 일각에선 이 전 총재가 여전히 대권포부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이 후보가 본선 직전 낙마할 경우에 대비, '대안카드'를 모색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특히 이 전 총재의 팬클럽인 '창사랑'이 11일 이 전 총재의 납대문 사무실을 방문, 대선 출마를 공식 요구기로 하면서 이 같은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이 전 총재측은 이 같은 해석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이 전 총재 본인도 이 후보와의 회담에서 '대선후보를 두 번이나 지냈고 현실정치에서 물러나 있기 때문에 특정 직책을 맡는 것은 좀 그렇다. 당 밖에서 힘껏 돕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측근들이 전했다.

이회창 전 총재측은 9일 "원로"로서 이 후보를 당 밖에서 편하게 돕겠다는 게 이 전 총재의 생각"이라며 "대선출마를 요구하고 있는 창사랑에 대해서도 '그럴 상황이 아니다'며 간접적으로 자체를 주문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각의 대권포부설을 일축했다. /연합뉴스

Large advertisement for 'Ampeung Diner's Country Club' featuring a golf course and text: '사계절 양산디의 환상적인 골프장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임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